

# 與, 北미사일 추가발사 고강도 비판

“깊은 유감...용납될 수 없어” 한목소리 규탄

이인영 “한반도 평화 역행...즉각 중단하라”

한국당 핵무장론 “안보 포퓰리즘...아베와 닮아”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1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여러 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한 데 대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비판의 무게를 실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5일에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북한은 9·19 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해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론 최고위원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상 진전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지속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돌발적 군사행동은 어렵게 살려나가는 비핵화 협상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이런 군사행동이 한국의 내북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우리 국내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북미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북한의 이런 도발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경제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군사행동을 통한 의

사표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그간 남북 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쌓아온 상호 신뢰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장론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적 고립 ▲한미동맹 균열 ▲동북아 핵무장 경쟁 촉발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평화와 공존에 들어선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한국당을 비판하는 북한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들이 한국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안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있다. 외교·안보 위협 속에서 정쟁과 당리당략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은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핵무장론이) 얼마나 큰 핵폭탄급의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지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러한 발언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하는 국가라는 아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및 일본 우익 세력과 닮아있는 이란적 쌍둥이 같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황교안 “나는 친박에게 빚진 것 없다” 발언 박지원 “친박이 도와 당대표됐는데...”

“리더십 흔들리고 있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나는 친박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찢겨져서 찢겨져 다가는 결국 자기 혼자 외롭게 남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세상이 다 안다. 친박이 도와서 당대표가 됐고 지금까지 자기도 ‘도로박근혜당’이 되기 위해서 사 무총장이다 모든 당직을 친박한테 줬다”며 “양쪽 다해서 누구 편도 없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교안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

해 “김무성 남경필 유승민 등이 움직이고 있고 친박 신당은 생기고 있다”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한국당도 태어났다고 하면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개혁은 하지 않고 자꾸 보수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길로만 가다가 이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 3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당에 친박·비박(비박근혜)은 없다”며 “나는 친박(친박근혜)에 빚진 것이 없다. ‘도로친박당’ 이런 조어를 언론이 만드는 것은 구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일본의 경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방일단의 단장 서청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 국회 방일단 단장 서청원 “양국 엄중 상황...윤희유 역할 하겠다”

최근 빚어진 한일 간 무역 분쟁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파견된 국회 방일단 서청원 단장은 지난 7월 31일 일본에 도착한 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다. 양국 간 엄중한 상황에 윤희유,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소속이나 최다선 의원이고 한일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6분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지금까지 (한일) 의원 간 교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최근 수출규제 등)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방일단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낮 12시 예정된 일한의원연맹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 등과의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 사정 등으로 도착이 늦어져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서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인터뷰를 길게 하고 싶은데 일정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하겠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일본에 온 방일단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김광림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일한의원연맹과의 오찬을 진행한 후 오후 3시30분께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의 면담, 오후 5시에는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의 나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 등을 진행했다.

## 바른미래당 “北 군사도발 강력 규탄...정부 적극 대응해야”

“정부, 안일한 종전 인식에서 헤어 나와야”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3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밖에 되지 않아 또다시 군사도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남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제대로 된 항의조

차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국방부장관의 유감 표명 정도가 전부”라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종전이란 안일한 인식에서 헤어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악화되기만 하는 안보 상황을 혁신하기 위한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 인식 쇄신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